

## 직업가치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분석

조운서<sup>1\*</sup>

<sup>1</sup>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 The Analysis of Job Preparation Activities by Work Value

Yun-Seo Jo<sup>1\*</sup>

<sup>1</sup>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0년도를 활용하여 대학생 6847명의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업가치는 내재적 중요도, 실제적 중요도, 외재적 중요도 등으로 설정하였고, 취업준비행동을 취업목표 설정 유무, 진로/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참여 유무,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무,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 검사 참여 유무, 교내 취업 박람회 참여 유무, 진로 관련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유무,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 유무, 취업캠프 참여 유무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자의 성별, 학교유형, 학교소재지, 전공에 따라 직업가치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직업가치 중 실제적 중요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 )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내재적 중요도와 외재적 중요도는 취업준비행동에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준비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직업탐색의 중요한 요소인 직업가치에 대한 새로운 검증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job preparation activities by work value, this study utilized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0 Year and the subjects of this surveys were 6,847 people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s: First, Work value w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type of school, school location, major fields. Second, The practical importance factor was found to have positive(+ ) influence on job preparation activities. Third, The intrinsic importance factor and the extrinsic importance factor were found to have negative (-) on job preparation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detailed analysis on job preparation activities, offering new verification of work value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occupation exploration to university students looking for employment.

**Key Words** : Work Value, Job Preparation Activities, Job Program.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실업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은 청년층의 개인적 문제를 떠나 국가적인 문제이며 손실이 되고 있다.

2013년 1월 통계청[1]이 발표한 '2012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증가하였으나, 20대 취업자는 2만7천명 감소하였고 특히 교육별 실업자는 중졸이하에서 5.5%, 고졸에서 9.9% 감소하였지만, 대졸이상에서 3.7% 증가하였다. 이처럼 심각한 취업난 시대에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 취업준비에 과도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학교 역시 대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0[2]). 그리고

\*Corresponding Author : Yun-Seo Jo(Kyonggi Univ.)

Tel: +82-10-4402-0926 email: joyunseo@kyonggi.ac.kr

Received January 29, 2013

Revised (1st March 4, 2013, 2nd March 15, 2013)

Accepted April 11, 2013

취업관련 서비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취업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이상호외, 2009[3]). 이처럼 대학교의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사전의 준비행동으로써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구직행동을 준비할 때에는 다양한 사회, 심리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이 늘고 있고(김병숙, 2006[4]),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개념 중의 하나가 직업가치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직업가치는 개인의 구직준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조직장면에서 일에 보람을 느낄 것이다(남순현, 2005[5]). 그러므로 직업가치에 따라 개인은 희망하는 취업을 위해 적절한 취업준비활동을 선택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역시 취업난속에서 희망하는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취업준비활동을 선택할 것이고, 취업준비 행동의 선택에 개인의 직업가치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 경우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이 직업가치가 만족스런 취업성과를 이루기 위한 사전 취업준비행동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의 취업준비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직업탐색의 중요한 요소인 직업가치에 대한 새로운 검증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적극성과 취업성과를 높이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다.

## 2. 이론적 배경

### 2.1 직업가치

가치란 개인이 환경에서 선호하거나 비선호하는 요소이고 동기의 근원이며 개인적 성취와 전반적인 목표의 기초가 되고(Spranger, 1928[6]), 개인이나 단체의 내재적 혹은 외재적 개념으로 행동의 양식, 목표,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Kluckhohn, 1952[7]). 그러므로 모든 의사결정에는 가치가 개입이 되고 나아가 직업 선택도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Rosenberg, 1959[8]). 특히 가치가 직업현장에서 적용될 때 직업가치라 정의되고(Judge 외, 1992[9]) 개인이 직업세계를 보는 사고 및 관점으로 개인이 직업을 영위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만기, 2010[10]).

한편 직업가치의 하위 영역은 Miller(1974)[11], Kazanas 외(1975)[12], Kalleberg(1977)[13], 백영균(1980)[14], 안강현 외(1988)[15], 박정란(2006)[16] 등의 의해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정의되었고, Ginzberg(1952)[17]와 Rosenberg(1957)[8]

(1957), 그리고 Super(1970)[18]에 의해 내재적 영역, 외재적 영역, 부수적 영역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직업가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시대별 직업가치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있다(Taylor, 1976[19]; 백영균, 1980[14]; 김본정, 1984[20]; 신경휴, 1985[21]; Nevill 외, 1989[22]; 이지우, 1994[23]; 이지연, 2006[24]).

한편 김수정(2011)[25]은 직업가치가 성별에 대하여 차이가 있고, 학년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전공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안강현(1998)[15]은 우리나라 전문대학생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 2.2 취업준비행동

심각한 취업난 속에 대학교는 취업준비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영대 외(2007)[26]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밝혔는데 이는 취업프로그램이 취업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리고 대학교의 취업프로그램의 참여와 효과의 연구는 성별(이상호 외, 2009[3]), 학교유형별 차이(고용노동부, 2010[2])가 보고되었는데, 2009년 이상호[3] 등은 학생들이 취업지원부서에 방문하는 목적이 취업 프로그램 신청이 여학생 42.0%이고 남학생 23.3%으로 여학생의 수요가 많은 반면 구직신청 및 취업정보 획득은 남학생이 23.3%이고 여학생이 22.0%로 남학생의 수요가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교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참여는 대학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학교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관련 교과목이 70.8% (4년제 88.9%, 전문대 57.2%), 진로지도와 직업상담이 80.6%(4년제 89.85, 전문대 73.8%), 취업캠프가 79.8%(4년제 79.6%, 전문대 80.0%), 취업특강이 79.1%(4년제 78.7%, 전문대 79.3%)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취업프로그램 참가율은 취업관련교과목운영이 16.0% (4년제 14.0%, 전문대 18.0%), 진로지도/직업상담이 20.0% (4년제 17.0%, 전문대 23.0%), 취업캠프가 7.0% (4년제 4.0%, 전문대 10.0%), 취업특강이 31.0% (4년제 23.0%, 전문대 37.0%)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0[2]).

이처럼 취업프로그램의 참여는 성별, 학교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프로그램에 4년제 대학생보다 2~3

년제 대학생들이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 2.3 직업가치와 취업준비행동

직업가치와 취업준비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업가치가 취업준비에 유의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즉 내재적 가치가 능력개발지향의 취업준비를, 외재적 가치가 관계설정지향의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오성욱 외, 2012[27]), 그리고 김수리 외(2008)[28]는 직업가치와 구직 준비활동 및 구직성과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개인의 직업가치에 따라 교육관련 구직 준비활동이 이루어지며 구직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만기(2010)[10]는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직업가치와 취업준비행동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성하고, 다음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년도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 본 연구의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직업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직업가치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분석자료 및 변인 설정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년도의 데이터 중 684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취업목표 설정과 취업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인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인중 개인특성으로 성별, 학교유형, 학교지역, 전공 등을 변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직업가치의 척도는 GOMS는 조사자에게 직업가치를 1=매우중요치 않음에서 5=매우중요함의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묻는 12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내재적중요도 3문항(개인 발전성, 직업자체의 미래 전망, 자신의 적성/흥미), 실제적 중요도 3문항(업무량, 업무내용의 난이도, 근로시간), 외재적 중요도 3문항(급여, 직장(고용)안정성, 근무환경 및 복리 후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중속

변인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해서는 GOMS는 조사자에게 취업목표설정과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취업목표 설정 유무, 진로/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참여 유무,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무,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 검사 참여 유무, 교내 취업 박람회 참여 유무, 진로 관련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유무,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 유무, 취업캠프 참여 유무이다.

### 3.3 연구방법

SPSS 18.0을 활용하여 직업가치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직업가치 차이와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취업준비 행동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짓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 4. 표본의 특성과 신뢰도, 타당도

### 4.1 표본의 특성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약 53%, 여성이 47%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은 2~3년제 32%, 4년제 68%로, 학교 소재는 수도권이 59%, 비수도권이 4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은 인문계열이 11%, 사회계열 26%, 교육계열이 4%, 공학계열이 30%, 자연계열이 11%, 의약계열이 6%, 예체능이 12%로 나타났다. 직업가치는 내재적중요도의 개인 발전성이 4.22점, 직업자체의 미래 전망이 4.27점, 자신의 적성/흥미가 4.13점이고, 실제적 중요도의 업무량이 3.58점,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3.48근로시간 3.81점, 외재적 중요도의 급여가 4.22점, 직장(고용)안정성이 4.26점, 근무환경 및 복리 후생이 3.99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보면 취업목표 설정 있음이 64%, 진로/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참여 있음이 32%,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있음이 22%,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 검사 참여 있음이 37%, 교내 취업 박람회 참여 있음이 32%, 진로 관련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있음이 19%,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 있음이 28%, 취업캠프 참여 있음이 11%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6847)

Division		M	SD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Dummy (1 = Male, 0 = Female)	.53 .499
	Type	Dummy (1 = 2 ~ 3 year, 0 = 4 year)	.31 .466
	Location	Dummy (1 = Capital, 0 =Region)	.59 .491
	Major	Dummy (1 = Humanity, 0= Humanity)	.11 .311
		Dummy (1 = Social, 0= Humanity)	.26 .439
		Dummy (1 = Education, 0= Humanity)	.04 .203
		Dummy (1 = Technology, 0= Humanity)	.30 .458
		Dummy (1 = Natural, 0= Humanity)	.11 .323
		Dummy (1 = Medical, 0= Humanity)	.06 .237
	Dummy (1 = Art&Physical, 0= Humanity)	.12 .311	
W o r k  V a l u e	Intrinsic Importance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ies	4.22 .744
		The future prospects	4.27 .751
		Aptitude / Interest	4.13 .785
	Practical Importance	A mount of business	3.58 .832
		The difficulty of the job description	3.48 .836
		Working hours	3.81 .825
	Extrinsic Importance	Salary	4.22 .738
		workplace (employment) stability	4.26 .727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3.99 .766
		Job goal setting(1= yes, 2= no)	1.36 .480
Job Preparation Activities	Credit course such as career employment participation (1= yes, 2= no)	1.68 .466	
	Work experience program participation (1= yes, 2= no)	1.78 .413	
	Occupational psychological examinations participation included in Personality test or Aptitude test (1= yes, 2= no)	1.63 .484	
	Campus job fair participation (1= yes, 2= no)	1.68 .465	
	Career-related personal /group counseling program participation (1= yes, 2= no)	1.81 .395	
	Interview skills or resume writing program participation (1= yes, 2= no)	1.72 .451	
	Job camp Participation (1= yes, 2= no)	1.89 .311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교회전방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유값 1이상, 요인 적재치 0.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GOMS의 일자리 중요도의 문항중 공통성이 낮은 회사규모(.344), 전공과의 관련성(.483), 출퇴근 거리(.370)를 제외하였다.

Table 2에서 같이 요인적재량이 내재적 중요도는 0.738~0.842로, 실제적 중요도는 0.649~0.856, 외재적 중요도는 0.551~0.807으로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중요도 0.762, 실제적 중요도 0.729, 외재적 중요도 0.663으로 신뢰도 또한 검증되었다.

[Table 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work value

Division	Factor loadings	Commonality	Unique value	Distributed explanatory	Cronbach α
Intrinsic Importance	1	.842	.749	2.074	23.041 (23.041)
	2	.826	.732		
	3	.738	.588		
Practical Importance	4	.856	.757	2.042	22.685 (45.727)
	5	.801	.670		
	6	.649	.611		
Extrinsic Importance	7	.807	.669	1.865	20.727 (66.454)
	8	.780	.657		
	9	.551	.547		

Reference

1. Personal development possibilities
2. The future prospects / 3. Aptitude & Interest
4. A mount of business / 5. The difficulty of the job description
6. Working hours / 7. Salary / 8. Workplace (employment) stability
9.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5. 연구결과

5.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를 본 결과, 내재적 중요도(남학생 M=4.23, 여학생 M=4.15, p<.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한편 실제적 중요도(남학생 M=3.57, 여학생 M=3.67, p<.001)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외재적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학교유형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Table 4를 본 결과, 내재적중요도(2~3년제 M=4.14, 4년제 M=4.22, p<.001)에서 4년제가 2~3년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나 실제적 중요도와 외재적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학교소재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 Table 5를 본 결과, 내재적 중요도(수도권 M=4.22, 비수도권 M=4.15, p<.001)에서 수도권 소재 학교가 비수도권 소재 학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실제적 중요도(수도권 M=3.58, 비수도권 M=3.68, p<.001)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러나 외재적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 Table 6를 살펴보면, 실제적 중요도(F=7.380, p<.001)에서는 의약계열(M=3.81)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계열(M=3.72)이 높았다. 외재적 중요도(F=3.957,  $p<.001$ )에서는 의약계열이 (M=4.23)가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M=4.10), 예체능 계열(M=4.09)이 가장 낮았다.

[Table 3] Difference of work value to gender

Division	Gender	N	M	SD	t
Intrinsic Importance	Male	3643	4.23	.62	5.399***
	Female	3204	4.15	.62	
Practical Importance	Male	3643	3.57	.69	-5.919***
	Female	3204	3.67	.63	
Extrinsic Importance	Male	3643	4.15	.58	-0.327
	Female	3204	4.15	.56	

+p<.10,\*p<.05,\*\*p<.01,\*\*\*P<.001

[Table 4] Difference of work value to type of school.

Division	Type	N	M	SD	t
Intrinsic Importance	2~3years	2183	4.14	.62	-4.705** *
	4years	4664	4.22	.62	
Practical Importance	2~3years	2183	3.63	.64	1.186
	4years	4664	3.61	.68	
Extrinsic Importance	2~3years	2183	4.16	.56	1.117
	4years	4664	4.14	.57	

+p<.10,\*p<.05,\*\*p<.01, \*\*\*P<.001

[Table 5] Difference of work value to the location of school.

Division	Location	N	M	SD	t
Intrinsic Importance	Capital Region	4058	4.22	.62	4.673***
	2789	4.15	.62		
Practical Importance	Capital Region	4058	3.58	.66	-6.104***
	2789	3.68	.66		
Extrinsic Importance	Capital Region	4058	4.14	.57	-0.919
	2789	4.16	.56		

+p<.10,\*p<.05,\*\*p<.01, \*\*\*P<.001

[Table 6] Difference of work value to major field

Division	Major	N	M	SD	F	Post Hoc
Intrinsic Importance	Humanity	747	4.14	.65	1.588	-
	Social	1774	4.19	.63		
	Education	314	4.18	.63		
	Technology	1994	4.21	.60		
	Natural	848	4.19	.63		
	Medical	364	4.17	.60		
Practical Importance	Art&Physical	806	4.22	.62	7.380***	1,2,4,5,6,7< 3,6
	Humanity	747	3.57	.67		
	Social	1774	3.60	.65		
	Education	314	3.72	.68		
	Technology	1994	3.60	.66		
	Natural	848	3.68	.68		
Extrinsic Importance	Medical	364	3.81	.65		
	Art&Physical	806	3.60	.67		

Extrinsic Importance	Humanity	747	4.10	.59	3.957***	1,7<6
	Social	1774	4.16	.56		
	Education	314	4.15	.63		
	Technology	1994	4.16	.54		
	Natural	848	4.14	.56		
	Medical	364	4.23	.54		
Art&Physical	806	4.09	.62			

+p<.10,\*p<.05,\*\*p<.01, \*\*\*P<.001

5.2 취업목표 설정 경험 Table 7은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1.525배( $p<.001$ ) 높고, 인문계열이 사회계열 보다 1.315배( $p<.01$ ), 교육계열 보다 1.612배( $p<.01$ ), 공학계열 보다 1.262배( $p<.05$ ), 자연계열 보다 1.483배( $p<.001$ ), 의약계열보다 1.956배( $p<.001$ ), 예체능계열보다 1.329배( $p<.01$ ) 높았다. 내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618배( $p<.001$ ), 실제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1.184배( $p<.001$ ), 외재적중요도가 낮을수록 1.162배( $p<.01$ ) 높았다.

[Table 7] Variables influencing job goal setting

		Division	B	S.E	Wald	Exp(B)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011	.057	.036	.989
		Type of School	.422***	.056	56.163	1.525
	School Location		-.011	.053	.045	.989
		Social	-.274**	.092	8.940	.760
	Education	-.478**	.145	10.820	.620	
	Technology	-.234*	.094	6.163	.792	
	Natural	-.394***	.106	13.687	.674	
	Medical	-.671***	.142	22.413	.511	
	Art & Physical	-.286**	.107	7.067	.752	
	Work Value	Intrinsic Importance	-.481***	.047	103.772	.618
Practical Importance		.169***	.045	14.224	1.184	
Extrinsic Importance		-.151**	.053	8.049	.860	
Constant		1.592***	.228	48.620	4.915	

-2 Log 8703.740  
 $\chi^2=245.410(df=12,p=.000)$ \*\*\*  
 Nagelkerke R-제곱 .048

+p<.10,\*p<.05,\*\*p<.01, \*\*\*P<.001

진로/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참여 경험 Table 8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283배( $p<.001$ ),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1.338배( $p<.001$ ) 높고,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1.212배( $p<.001$ ), 인문계열이 사회계열 보다 1.451배( $p<.001$ ), 공학계열 보다 1.288 배보다 ( $p<.05$ ), 자연계열보다 1.288( $p<.05$ )높았고 예체능 계열은 인문계열보다 1.224배( $p<.10$ ) 높았고, 내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396배( $p<.001$ ), 실제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1.178배( $p<.001$ ), 외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172배( $p<.01$ ) 높았다.

[Table 8] Variables influencing credit course such as career employment participation

Division		B	S.E	Wald	Exp(B)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249***	.058	18.455	1.283	
	Type of School	.291***	.060	23.616	1.338	
	School Location	-.193***	.055	12.285	.825	
	M a j o r	Social	-.373***	.096	15.050	.689
		Education	-.158	.147	1.146	.854
		Technology	-.254*	.099	6.524	.776
		Natural	-.253*	.109	5.351	.776
Medical	-.018	.149	.014	.982		
Art & Physical	.202+	.117	2.982	1.224		
Work Value	Intrinsic Importance	-.334***	.049	45.945	.716	
	Practical Importance	.164***	.045	13.515	1.178	
	Extrinsic Importance	-.159**	.055	8.352	.853	
Constant		2.332	.245	90.458	10.302	

-2 Log 8380.084  
 $\chi^2=178.383(df=12,p=.000)***$   
 Nagelkerke R-제곱 .036

+p<.10,\*p<.05,\*\*p<.01, \*\*\*P<.001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 Table 9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382배(p<.001),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1.358배(p<.001) 높고 비수도권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1.288배(p<.001), 인문계열이 사회계열보다 1.445배(p<.01), 자연계열보다 1.383배(p<.01) 높았다. 내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490배(p<.001), 실제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1.074배(p<.001), 외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180배(p<.01) 높았다.

[Table 9] Variables influencing work experience program participation

Division		B	S.E	Wald	Exp(B)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323***	.065	24.693	1.382	
	Type of School	.306***	.068	19.931	1.358	
	School Location	-.253***	.063	16.402	.776	
	M a j o r	Social	-.368**	.109	11.470	.692
		Education	-.222	.164	1.820	.801
		Technology	-.144	.114	1.607	.865
		Natural	-.324**	.123	6.969	.723
Medical	-.251	.164	2.320	.778		
Art & Physical	.083	.132	.392	1.086		
Work Value	Intrinsic Importance	-.399***	.056	49.803	.671	
	Practical Importance	.071***	.050	2.017	1.074	
	Extrinsic Importance	-.166**	.063	6.969	.847	
Constant		3.499***	.285	150.907	33.075	

-2 Log 7002.185  
 $\chi^2=176.818(df=12,p=.000)***$   
 Nagelkerke R-제곱 .039

+p<.10,\*p<.05,\*\*p<.01, \*\*\*P<.001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참여 경험 Table 10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406배(p<.001),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1.533배(p<.001),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1.283배(p<.001), 사회계열보다 인문계열이 1.176배(p<.10), 예체능계열이 인문계열보다 1.566배(p<.001) 높았다. 내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398배(p<.001), 실제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1.173배(p<.001), 외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136배(p<.05) 높았다.

[Table 10] Variables influencing occupational psychological examinations participation included in Personality test or Aptitude test

Division		B	S.E	Wald	Exp(B)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341***	.056	36.931	1.406	
	Type of School	.427***	.058	53.911	1.533	
	School Location	-.250***	.053	22.097	.779	
	M a j o r	Social	-.162+	.091	3.173	.850
		Education	-.160	.139	1.318	.852
		Technology	-.041	.094	.192	.960
		Natural	-.080	.104	.587	.923
Medical	.009	.140	.005	1.009		
Art & Physical	.448***	.111	16.348	1.566		
Work Value	Intrinsic Importance	-.335***	.047	49.981	.715	
	Practical Importance	.159***	.043	13.531	1.173	
	Extrinsic Importance	-.128*	.053	5.837	.880	
Constant		1.750***	.234	56.165	5.755	

-2 Log 8803.921  
 $\chi^2=242.528(df=12,p=.000)***$   
 Nagelkerke R-제곱 .047

+p<.10,\*p<.05,\*\*p<.01, \*\*\*P<.001

교내 취업박람회 참여 경험 Table 11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1.112배(p<.10),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1.824배(p<.001) 높고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1.533배(p<.001) 높았고 인문계열보다 교육계열이 1.879배(p<.001), 의약계열이 1.750배(p<.01), 예체능계열이 2.181배(p<.001) 높았다. 내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321배(p<.001), 실제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1.093배(p<.05), 외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200배(p<.05) 높았다.

진로관련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 Table 12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125배(p<.10), 비수도권 소재 학교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학생보다 1.201배(p<.01), 인문계열보다 예체능계열이 1.732배(p<.001) 높았다. 내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477배(p<.001), 실제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1.100배(p<.10) 높았다.

[Table 11] Variables influencing campus job fair participation

Division		B	S.E	Wald	Exp(B)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107+	.059	3.293	.899
	Type of School	.601***	.063	92.092	1.824
	School Location	-.428***	.056	57.684	.652
M a j o r	Social	.037	.094	.153	1.037
	Education	.630***	.162	15.130	1.879
	Technology	-.088	.096	.832	.916
	Natural	-.004	.107	.001	.996
	Medical	.560**	.162	11.901	1.750
	Art & Physical	.780***	.121	41.437	2.181
W o r k V a l u e	Intrinsic Importance	-.279***	.050	31.438	.757
	Practical Importance	.089*	.045	3.888	1.093
	Extrinsic Importance	-.125*	.056	4.983	.883
Constant		2.178***	.247	78.011	8.833

-2 Log 8161.356  
 $\chi^2=377.100(df=12,p=.000)$ \*\*\*  
 Nagelkerke R-제곱 .075

+p<.1,\*p<.05,\*\*p<.01, \*\*\*P<.001

[Table 12] Variables influencing career-related personal /group counseling program participation

Division		B	S.E	Wald	Exp(B)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118+	.068	3.029	1.125
	Type of School	.063	.070	.813	1.065
	School Location	-.184**	.065	8.065	.832
M a j o r	Social	-.062	.108	.332	.940
	Education	.117	.172	.461	1.124
	Technology	.044	.113	.150	1.045
	Natural	.109	.126	.741	1.115
	Medical	.279	.175	2.533	1.322
	Art & Physical	.549***	.139	15.677	1.732
W o r k V a l u e	Intrinsic Importance	-.390***	.058	44.760	.677
	Practical Importance	.095+	.052	3.394	1.100
	Extrinsic Importance	-.036	.064	.310	.965
Constant		2.832	.289	95.809	16.986

-2 Log 6623.174  
 $\chi^2=101.564(df=12,p=.000)$ \*\*\*  
 Nagelkerke R-제곱 .024

+p<.1,\*p<.05,\*\*p<.01, \*\*\*P<.001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 Table 13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169배(p<.01),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1.328배(p<.001), 인문계열보다 예체능계열이 1.616배(p<.001) 높았다. 내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394배(p<.001), 실제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1.123배(p<.05), 외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164배(p<.01) 높았다.

취업캠프 참여 경험 Table 14은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1.331배(p<.01) 높고. 내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335배(p<.001), 실제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1.122배(p<.10), 외재적 중요도가 낮을수록 1.199배(p<.05) 높았다.

[Table 13] Variables influencing interview skills or resume writing program participation

Division		B	S.E	Wald	Exp(B)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156**	.060	6.862	1.169
	Type of School	.062	.061	1.052	1.064
	School Location	-.284***	.057	24.789	.753
M a j o r	Social	-.083	.097	.730	.921
	Education	.055	.151	.131	1.056
	Technology	.006	.100	.003	1.006
	Natural	.010	.111	.007	1.010
	Medical	.165	.151	1.197	1.179
	Art & Physical	.480***	.120	16.033	1.616
W o r k V a l u e	Intrinsic Importance	-.333***	.051	42.833	.717
	Practical Importance	.116*	.046	6.447	1.123
	Extrinsic Importance	-.152**	.057	7.105	.859
Constant		2.570***	.253	103.040	13.059

-2 Log 8029.047  
 $\chi^2=142.884(df=12,p=000)$ \*\*\*  
 Nagelkerke R-제곱 .030

+p<.1,\*p<.05,\*\*p<.01, \*\*\*P<.001

[Table 14] Variables influencing job camp Participation

Division		B	S.E	Wald	Exp(B)
P e r s o n a l i t y	Gender	-.009	.086	.010	.991
	Type of School	.286**	.092	9.672	1.331
	School Location	.029	.081	.131	1.030
M a j o r	Social	-.184	.143	1.658	.832
	Education	.258	.242	1.133	1.294
	Technology	-.201	.146	1.904	.818
	Natural	-.181	.161	1.275	.834
	Medical	.358	.249	2.063	1.430
	Art & Physical	.266	.181	2.157	1.304
W o r k V a l u e	Intrinsic Importance	-.289***	.074	15.118	.749
	Practical Importance	.115+	.065	3.149	1.122
	Extrinsic Importance	-.182*	.083	4.770	.834
Constant		3.663	.374	96.062	38.967

-2 Log 4629.536  
 $\chi^2=68.751(df=12,p=000)$ \*\*\*  
 Nagelkerke R-제곱 .020

+p<.1,\*p<.05,\*\*p<.01, \*\*\*P<.001

## 6. 결론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년도를 활용하여 대학생 6847명의 직업가치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직업가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는 남학생이 내재적 중요도에, 여학생이 실제적 중요도에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남녀의 차이를 보인 김수정(2011)[2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내재적 중요도에서 4년제 대학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학교유치에 따른 차이는 내재적 중요도에서 수도권 소재 학교가, 실제적 중요도에서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내재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남순현(2005)[5]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전공에 따른 차이는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이 실제적 중요도에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외재적 중요도에서도 의약계열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공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김수정(2011)[25]의 연구와 남순현(2005)[5]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수정(2011)[25]의 연구와 같이 남학생은 진취적이고 탐색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직업가치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수동적이고 안주적인 직업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의약계열 학생들이 직업가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명문학과일수록 높은 보수와 사회적 명성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의 보편적 시각이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된다.

둘째,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취업준비 행동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3년제 대학이 4년제 보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다. 또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다른 전공에 비해 참여가 높았다.

이는 성별의 차이를 보고한 이상호 외, 2009[3]의 연구와 학교유형별 차이를 보고한 고용노동부, 2010[2]와 같은 결과이다. 즉 취업준비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며,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생과 수도권 소재 대학생보다 취업성공에 열악한 2~3년제 대학생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생이 취업준비에 더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직업가치의 영향은 모든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에 실제적 중요도는 정(+)의 영향력을 보인 반면, 내재적 중요도와 외재적 중요도는 부(-)의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남순현(2005)[5]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하지만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결과를 제시한 이만기(2010)[10]의 연구와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높을 수록 구직 준비 활동이 많아지는 반면

부수적 가치가 높을수록 구직 준비활동이 적어진다는 김수리 외(2008)[28]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개인의 적성과 흥미, 발전성 그리고 채용기업의 임금 등 복리후생적인 면을 강조하기 보다, 실제 취업현장경험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실제적 중요도를 중시하는 직업가치가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에 정(+)의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토대로 학교 혹은 정부에게 제언하는 바는 대학생의 올바른 직업가치 형성에 주안점을 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요소를 교육하는데 한 방향으로 치중하지 않은 취업관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직업가치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개인의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직업가치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으나, 이론적 근거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므로 직업가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인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둘째, 직업가치가 취업관련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변수 간의 영향력을 다양한 구조적 관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Annual employment trends 2012*, Statistics Korea, 2013.
-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national four-year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Employment Support Surve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 [3] Sang-Ho Lee, Wook-Hee Jang, Dae-Sun Jin,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for expansion of business effectiveness analysis*. Career Partner, 2009.
- [4] Byoung-Suk Kim, *Occupational Counseling Psychology*, Seoul: Sigma Press, 2006.
- [5] Sun-Hyun Nam, Major commitment and Work valu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9, No .1, pp. 223-242, 2005.
- [6] Spranger, E., *Type of man: The psychology and ethic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Reprint Corporation, 1928.
- [7] Kluckhohn, C.,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1952.



- [8] Rosenberg, M., *Occupation Values*, Glence: The Free Press. Scans Report, 1959.
- [9] Judge, T. A., Bretz, R. D.. Effects of work values on job choice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7, No. 3, pp. 261-271, 1992.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77.3.261>
- [10] Man-Gi Lee, *An analysis of Structural Model for Graduate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Job Suitability and Job Satisfactio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p. 170-171, 2010.
- [11] Miller, V. D., J. R., Grau, J. Antecedents to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 planned organizational change,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Vol. 22, pp. 59-80, 1994.  
DOI: <http://dx.doi.org/10.1080/00909889409365387>
- [12] Kozanas, H. C., D. hannah., T. G. Gregor, An instruments to measure the meaning and the value associated with work, *Journal of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Vol. 12, No. 4, pp. 68-73, 1975.
- [13] Kalleberg, A. L., Work values and job reward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No. 1K, pp. 124-143, 1977.  
DOI: <http://dx.doi.org/10.2307/2117735>
- [14] Young-Gyun Bag, *The Study of Career Value on Elementary students, Middle students, High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at Korea University, 1980.
- [15] Gang-Hyun Ann,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at Seoul University, 1988.
- [16] Jung-Ran Park, *Study on Female New Residence Seekers' Work Values and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 A contextual approach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doctoral dissertation at Lee Hwa University, 2006.
- [17] Ginzberg, E.,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Vol. 4, pp .4-91, 1952.
- [18] Super. D. E., *Manual for work values inventory*. Houghton Mifflin Company, 1970.
- [19] Taylor, K. M., Work val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certain personality type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internationnal*, Vol. 37, No. 5, pp. 2653-2654, 1976.
- [20] Bon-Jung Kim, *A Study o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Value in Occupation*, master's dissertation at Kyuong Sang University, 1984.
- [21] Kyung-Hu Sin, *A Study o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Occupational Values*, master's dissertation at Dan Kuk University, 1985.
- [22] Neville, D. D., Super, D. E., *Manual to the Values Scale(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89.
- [23] Ji-Woo Lee, A Study on Koera College Student's Work Value, *BUSINESS MANAGEMENT REVIEW*, Vol. 27, No. 1, pp. 135-148, 1994.
- [24] Ji-Youn Lee, The Change of Juvenile's Work Valu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3, pp. 163-181, 2006.
- [25] Soo Jeong Kim, *The Analysis of Career Adaptability by Cultural Self-Construal, Preference Types, Work Value Subtypes*, doctoral dissertation at Kyonggi University, 2011.
- [26] Young-Dae Lee, Whoung-Han Yun,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for business expansion plan activ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7.
- [27] Sung-Uook Oh, Suk-Hyun Choi, *An Exploratory Rearch on Unstableness Graduates's factor by Job-searching*,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p. 101-122, 2012.
- [28] Soo-Ri Kim, Mi-Jin Park,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college graduates in the job*,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08.

조 윤 서(Yun-Seo Jo)

[중심회원]



- 2010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 2001년 1월 ~ 현재 : 지평아카데미 대표

<관심분야>  
직업심리, 노동시장